

아트 갤러리

이광호 '무제 1302'



이광호 '무제 (Untitled) 1302', 193.9×259.1cm, 2013년작 /사진제공=국제갤러리

심상치 않은 풍경이다.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듯 나무와 넝쿨이 뒤엉킨 숲에서 마치 도시 문명을 한 번도 접한 적 없이 얼굴이 새까매지도록 바다만을 벗 삼아 뛰놀며 자란 섬 처녀의 생명력이 느껴진다. 정돈되지는 않았지만 꿈틀대는 강렬함을 풍기는 첫인상이 사람을 끌어당기듯 화면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. 정교하게 그린 그림은 단지 사실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. 여러 겹의 층위를 갖고 있어 그림 안에서 깊이감을 이룬다.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마음처럼 말이다. 사실주의 화가 이광호는 대표작 '선인장' 시리즈에 이어 겨울 풍경을 신작으로 내놓았다. 나무와 넝쿨이 뒤엉킨 제주도 곶자왓이 그 대상이다. 대형 화폭에 풍경을 담는 과정을 "숲을 헤매는 느낌"이라고 한 작가는 "벗은 내게 애무의 도구이며 숲은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정념의 공간"이라 할 정도로 깊은 감수성과 애정을 담았다. 국제갤러리 1관에서 내년 1월25일까지 개인전이 열린다.

/조상인기자 ccsi@sed.co.kr